



Taiwan

홍콩지사

농업과 관광 · 문화의 만남 관광 농업(leisure farm)



대만 정부에서 운영하는 관광 농업 홍보 사이트

단순한 생산(1차 산업)에서부터 관광 농업(6차 산업)에 이르기까지

최근 농업은 빠른 변화와 함께, 단순한 농산물의 생산에 초점을 둔 1차 산업에서 6차 산업인 관광농업(recreational agriculture, 休閒農場)으로 발전하면서 창의적인 활동과 다양한 농산물을 결합해 풍성한 경험을 선사한다. 6차 산업이란 1차 산업인 농수산업과 2차 산업인 제조업,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복합된 사업을 말한다. 관광농업을 예로 들면, 농촌은 농업이라는 1차 산업과 특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재화의 생산(2차 산업), 그리고 관광프로그램 등 각종 서비스를 창출(3차 산업)해 이른바 6차 산업이라는 복합산업공간이 되는 것이다. 대만 농업위원회(Council of Agriculture)는 단지 농산물 생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락, 교육, 사회 및 환경 기능(휴양 농업(休養農業))을 위해 전통 농산물에 변화를 추구하는 작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대만 정부는 관광농업을 '농촌의 자연생태계 및 아름다운 경관을 활용하고 농업, 임업, 어업 및 축산업의 생산과정, 농업 활동, 농촌의 문화 및 농민 가족생활을 통합하는 농업 관리의 일종이며, 시민의 농업·농촌

체험의 목표를 재창조하고 향상한다'고 정의를 내리며 관광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① 우수 관광농업(Recreational Agriculture) 분야 시상식

대만 농업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2회 우수 관광농업 지역(Recreational Agricultural Area) 시상식이 올 7월 9일에 개최되었는데, 총 38개의 관광농업 지역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만 농업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농촌 마을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61만 명의 외국인인 포함한 2,760만 명으로 180억 대만 달러(약 6,84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대만 농업위원회에 따르면 대만 전체에 93개의 관광농업 지역이 있으며 2013년부터 매년 전문가 및 학자들에 의해 감사, 현장 검사 및 발표를 통해 운영효율을 평가받았다.

강마원(薑麻園, JiangMaYuan), 침두산(枕頭山, ZhentouShan), 중산촌(中山村, JhongShan), 도미(桃米, TaoMi) 관광 농업 지역은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쌍담촌(雙潭村, ShuangTan), 리지향(梨之鄉, Pear Homeland), 진후현(金湖鎮, JinHu) 관광 농업 지역은 탁월한 성과로 우수상을 받았다.

② 이상적인 농업 관광지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

대만 농업위원회는 모든 관광농업 지역이 독특한 경험과 특색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枕頭山(ZhentouShan) 관광농업지는 '과일꽃 축제'를 여는 한편 신선한 현지농산물로 만든 다양한 기념품을 제공한다. 中山村(JhongShan) 관광농업지는 유기농 차와 포멜로(pomelo)를 활용한 체험활동을 제공한다. 생강으로 잘 알려진 薑麻園(JiangMaYuan) 관광농업지는 생강요리와 생강 심기 및 수확과 같은 생강의 재배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는 연속적인 야외 활동으로 단골 방문객을 모집했다. 雙潭村(ShuangTan) 관광농업지는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꽃을 보고 과일을 따거나 지역 전통음식을 맛보며 도자기, 조각 및 채색과 같은 인기 있는 DIY 활동으로 농업과 예술활동을 연계해 경험해 볼 수 있다. 梨之鄉(Pear Homeland) 관광농업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배나무심기부터 시작하여 배 재배의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홍콩과 마카오의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독창적인 원스톱(One stop) 프로그램이다. 독특한 반딧불 증을 가진 桃米(TaoMi) 관광농업지는 생태 보전지역으로 매년 5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다. 마지막으로, 金湖鎮(JinHu) 관광농업지는 새우, 조개, 생선, 농산물을 포함한 양식 및 해산물과 관련한 흥미로운 체험을 제공한다.

③ 관광농업은 농업을 추진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중요한 기반

대만 농업위원회 장관은 관광농업은 지역 농업의 특성, 문화, 경관 및 생태 자원을 통합하여 지역 산업 및 휴양 농업의 특성을 형성한다고 언급하면서 외국인 관광객과 국내 관광객 모두가 대만 농촌마을을 방문하고 지역 문화를 경험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농촌 경제를 더욱 발달시키고 젊은 인재가 시골 지역으로 이주하는 데 동기 부여가 되고 있다. 대만 농업위원회는 지역 활성화, 식량 농업교육, 지역 소비생산과 같은 주요 정책에 따라 관광농업을 계속 홍보할 계획이며, 리조트 및 호텔 등 숙박업소 등도 대만의 관광농업을 연계해 홍보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④ 온라인 사이트 운영 및 대만의 과일 여행지도 제작

대만 농업위원회는 관광농업 온라인 사이트(ezgo.coa.gov.tw)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사이트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계절별로 즐길 수 있는 지역축제, 레저 활동, 지역 특

산 기념품을 소개하고 있으며 농가에서 숙식하면서 농사와 농촌생활, 문화체험과 마을축제 참여의 기회를 가지는 '팜스테이(Farm Stay)' 정보 등을 제공한다. 포괄적인 정보 제공 뿐 아니라 실제로 운영되는 곳의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및 이용 후기 등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유익한 정보가 홈페이지에 모두 모여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대만 각 지역의 대표적인 생산과일을 표시한 대만 과일여행 지도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농산촌 지역의 방문 및 관광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 대만 정부에서 제작한 과일여행 지도 |



대만이 관광농업 활성화에 주력하는 이유

살아 있는 교육현장

관광농업 활성화의 주요 목적은 농업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에 있다. 슈퍼마켓에서 포장된 쌀만 보고 자란 도시 방문객들에게 관광농업은 논에서 쌀을 심는 방법을 배우고 쌀의 재배과정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야외 교실이 된다. 이 활동은 싱가포르와 홍콩과 같이 고도로 도시화 된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대만에는 200개가 넘는 관광 농장이 있으며 소박한 농장부터 고급스러운 곳까지 다양한 시설이 조성되어 있어 방문 목적에 맞춘 선택이 가능하다.

가족 간의 유대감

생태와 문화체험의 조화는 도시 아이들이 자연환경에서 개구리, 반딧불이, 나비, 메뚜기와 같은 다양한 곤충, 동물과 다양한 식물을 보고 느끼며 산책하는 가족 시간을 제공한다. 함께 채소나 과일 따기, 낚시, 만들기 등의 다양한 체험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풍부하게 해준다.

복잡한 도시생활에서의 탈출

바쁜 도시생활에 지친 도시인들에게 농장은 편안한 주말여행을 위해 많은 이들이 선택하는 목적지가 되었다. 팜 스테이는 친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먹고 잠자고 뛰어 놀고 활동하면서 복잡한 도시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잠시 벗어나 시골생활의 소탈한 삶을 누려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농가의 현실적인 문제 개선

관광농업으로의 전환은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일부 세대의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해준다. 농사에 무관심했던 농가의 자녀세대가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농업에 혁신과 창의력을 더하면서 관광농업 기획자, 체험활동 교사, 숙박업 관리자, 요리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젊은 세대의 참여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농가의 소득 개선 및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지역 농수산물 홍보의 장

다양하게 운영되는 관광농업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해당 지역의 농수산물, 지역 특산물에 노출되고 관광농업지는 소비자 체험 행사가 된다. 소비자들의 즐거웠던 경험은 농수산물을 활용한 기념품 구매로 이어지고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방문했던 지역의 농산물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충성 고객이 될 수 있다.

Key Point

한국 관광 농업의 세계화

현재 한국 관광농업 정보를 지역별, 테마별, 계절별로 잘 구축해 농협에서 운영하는 팜스테이 사이트(www.farmstay.co.kr)가 있다. 한국어로만 운영되는 이 사이트를 중국어, 영어 등 다양한 언어로 지원하고 대학생 자원봉사단과 연계하여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확대 홍보한다면, 체험 위주의 특별한 여행을 원하는 전 세계 관광객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농가소득 증기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한국 농수산물 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체험의 행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우수한 농수산물과 농업 유산, 관광 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소비자는 단순 구매보다는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는 분야에 더 큰 만족을 느낀다. 딸가포도 따기, 한국산 쌀로 가락엿 만들기, 인절미 떡매치기, 손두부 만들기 등 무궁무진한 한국 고유의 콘텐츠와 제주 밭담, 경남 하동 차농업 등 아름다운 한국의 자연을 연계해 관광 상품화 하게 되면 한국 농수산 식품의 홍보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리라 본다.